

經營經濟學史를 中心으로 한 文獻史的 考察

韓 義 泳

<目 次>

- 第 1 節 經營學과 經營學史
 - 1) 經營學史의 研究上 意義
 - 2) 經營學史의 接近方法
- 第 2 節 經營經濟學의 發達
 - 1) 經營學前史
 - 2) 商業學의 集大成
 - 3) 經營經濟學으로의 形成

第 1 節 經營學과 經營學史

1) 經營學史의 研究上 意義

『하나의 科學의 歷史는 科學 그 自體이다』(Die Geschichte einer Wissenschaft ist Wissenschaft selbst)라는 有名한 「괴테」(J.W. Goethe)의 말처럼 經營學을 體系的으로 研究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經營學의 歷史, 즉 經營學史를 理解하는 일부터 다져져야 함이 原則이다. 그것은 經營學 역시 餘他的 社會科學과 마찬가지로 研究하는 立場 내지 觀點의 相異에 따라 各種의 學派가 存在해 왔었으며, 또 그 研究對象과 研究方法에 따라서도 제각기 相異한 規定이 行해져 왔음으로써 過去와 現在에 있어서의 經營學의 生成과 發達을 더듬어 보고, 各學說 내지 各學派의 個別의 特性(또는 時代의 特徵)을 밝히는 것이 經營學의 體系的인 研究를 위해서도 必須不可缺한 前提일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날의 經營學이 어떠한 意味에 있어서도 企業의 實踐理論의 解明을 前提로 해서 生成되어졌다는 觀點에서 볼 때⁽¹⁾ 斯學이 얼마나 많은 先學들의 努力에 의해 그 理論의 이며 實踐的 內容이 飛躍的으로 精密化되어 왔으며, 企業의 合理的 運用을 위해서 얼마나

筆者: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經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1) 흔히 經營管理學(美國經營學)은 企業의 實踐的 要求에 따라 生成된 것으로 看做됨이 一般的인 데 반해 經營經濟學(獨逸經營學)은 어디까지나 商科大學의 設置에 의해 그 中心이 되는 學科의 必要性에서 成立되었다고 일컬어진다. 따라서 兩者는 그 成立基盤 및 課題를 달리 한다고 하지 만, 이러한 見解는 전혀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는 한낱 現象에만 사로잡힌 皮相的 見解인 것만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독일에 있어서 商科大學이 設置되어야 했던 背景은 이미 이러한 學科를 必要로 하게 되는 現實的 要請이 있었기 때문이다.

重要な役割이 演出되어 왔었는가를 歷史적으로 더듬어 보는 일 自體가 매우 重要的 經營學研究의 一方法일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經營學史는 經營學史임과 同時에 스스로 經營學의 하나의 研究方法으로써의 意味도 지닌다고 일컬어지는 緣由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며, 그러한 意味에서는 經營學의 學史의 研究는 매우 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經營學의 起源, 成立, 發展(學說의 對立), 論爭등의 動向을 理解한다는 것은 經營學史의 研究課題임과 同時에, 그것이 곧 經營學 그 自體의 性格을 決定하는 것으로도 看做될 수 있으며, 결국 經營學史가 經營學 그 自體라고 喝破해도 한낱 過言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經營學 그 自體의 研究와 經營學의 歷史의 研究, 즉 經營學과 經營學史研究와의 關聯이 一般的인 意味에서 前者가 企業活動에 관한 一般法則의 解明을 試圖하는데에 대해 後者は 過去로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의 經營學의 生成과 發展을 더듬어 보고 各學說 내지 各學派의 個別的 特性(또는 時代的 特徵)을 歷史적으로 밝히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理解된다면 經營學과 經營學史研究와는 전혀 無關係한 것은 아니라해도 一應 別個의 研究課題를 가지는 것으로 把握할 수는 있다. 그러한 觀點에 立脚할 때 經營學史를 理解함이 없이도 經營學自體의 研究는 그런대로 可能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現實의으로도 經營學史에 無關心의이거나 經營學史에 沒理論의인 態度를 갖는 經營學者나 經營研究者가 意外로 적지 않은 것만도 確實하다. 그러나 經營學에 관한 歷史的인 潮流나, 許多한 先學들의 貴重한 研究結果를 無視 내지 輕視함으로써 스스로 獨斷에 빠지지 않는다는 保證이란 없다. 특히 自己陶醉의이며 獨斷主義的인 自身の 研究結果만을 盲信해서 猪突猛進하는 者들 가운데에는 經營學史나 經營學說史를 度外視해서 이미 研究되어진 問題를 縮小再生産하는 등의 愚學를 범하게 되는 일이 許多하다. 그럴 때마나 經營學의 歷史的 研究가 얼마나 重要한가를 痛感할 수 밖에 없으며, 적어도 學問을 하는 者의 立場에서는 經營學도 學問인 以上 그 學問의 傳統을 尊重하고 올바른 傳統위에서 그 傳統을 넘어서는 努力을 되풀이 하면서 學問의 發展과 創造에 參加하는 氣概가 있어야 마땅한 것이다. 하긴 經營學이라는 學問自體가 그러한 學問의 歷史를 구태어 問題로 할만큼 그렇게 오래된 學問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經營學에는 經營學 나름대로의 歷史가 있으며, 또 그 起源과 生成은 비록 經濟學만큼은 못되더라도 그런대로의 潮流가 있음으로써 經營學의 研究에 앞서 經營學의 歷史性을 理解하는 일은 매우 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經營學은 物理學과 같은 自然科學과는 달리 經營을 中心으로 한 歷史的·社會的인 人間의 經濟活動에 관한 社會科學이기 때문에 歷史的 存在며 社會的 存在로써의 人間, 곧 經營에 관한 學問의 歷史는 마땅히 斯學研究의 前提가 되어야 지당하다. 時代에서 時代로 움직이는 經營學의 歷史는 따라서 그 時代的인

特徵(問題史的 特徵)과 學說史的인 特徵(文獻史的 特徵)이 있게 마련이어서, 이러한 諸特徵을 無視 내지 輕視하는 經營學研究는 經營學 自體의 本質을 전혀 理解치 못하는 自家懂着的인 猪突猛進일 수 밖에는 없다. 특히 經營學이 하나의 歷史科學이며, 歷史的인 實踐理論科學이라는 점에서 그 史的 考察은 더욱 絶對的이기조차하다.

결국 그러한 意味에서는 經營學 그 自體의 研究와 經營學의 歷史的인 研究, 즉 經營學과 經營學史의 研究와의 關聯은 대단히 密接하며, 經營學의 研究는 經營學史의 前提의 研究를 바탕으로 해서 비로소 科學的으로 體系化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經營學史研究의 基本的 課題가 오로지 過去에서 現在에 이르기까지의 諸學說 내지 諸學派의 個別的 特性 (또는 時代別 特性)을 밝히는 점에만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研究는 단순히 넓은 뜻에서의 文化史的 意義를 지닌 것으로서만 끝나게 되며, 經營學 그 自體의 研究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存在가 되어버릴 따름이다. 經營學史의 研究가 經營學 그 自體의 研究에 絶對的인 比重이 되고 있는 것은 歷史的인 學說이나 時代的인 特徵을 批判的으로 吟味하는 것을 통해서 斯學의 現狀을 밝히며 나아가서 將來에 있어서의 斯學發展의 方向을 模索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또 그것은 過去를 도리켜 봄으로써 現代企業의 實踐理論의 解明이라는 課題를 遂行하기 위한 手段, 즉 經營學史研究가 곧 經營學의 實踐的 理論의 確立을 위한 手段이 된다는 意味에서 더욱 그러하다.

2) 經營學史의 接近方法

經營學史를 研究함에 있어서는 우선 그 接近方法으로써 이른바 文獻史(Literaturgeschichte)와 問題史(Problemgeschichte)로 兩大別되는 研究方法가운데의 어느 하나가 選擇되어짐이 一般的이다. 文獻史的 研究方法이란 經營學史를 주로 過去의 文獻을 中心으로써 追求하고자 하는 一連의 接近方法을 가리키며, 오늘의 經營學史研究의 典型이 되고 있다. 즉 文獻史的 經營學史에 있어서는 過去에 나타난, 比較的 比重이 큰 先學들의 重要한 著書와 論文 등을 年代順으로 配列, 그 文獻考證을 통해서 이들 文獻의 內容을 概說, 나아가서 文獻的인 共通點에 따른 學史의 時代區分을 特徵지우게 하는 手段이 驅使되는 것이 그 大部分의 경우이다. 이를테면 獨逸經營經濟學의 歷史를 文獻史的으로 究明하고자 하는 許多한 論者⁽²⁾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자이펠트」(R. Seyffert)⁽³⁾가 經營經濟學史를 다음처럼 6期로 時代區

(2) 이를테면 E. Weber, Literaturgeschichte der Handelsbetriebslehre, Tübingen, 1914, (Neudruck, 1967)

A. Isaac, Die Entwicklung der wissenschaftlichen BWL in Deutschland seit 1898, Berlin, 1932

(3) R. Seyffert, über Begriff, Aufgaben und Entwicklung der BWL, C.E.Poeschel Verlag, Stuttgart, 1963

分해서 各期의 內容의 特徵을 文獻史的으로 整理・概說하면서 將來에 있어서의 斯學發展의 方向을 摸索한 것은(비록 近代史의 說明이 매우 簡略化되어졌다는 批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代表的인 例라 할 수 있다.

- ① 去來技術과 計算技術의 指導書의 初期時代(1675년부터)
- ② 體系的인 商去來學(Handlungswissenschaft)時代(1675年~1804年)
- ③ 商業學(Handelswissenschaft)의 退步時代(19世紀)
- ④ 敘述의 商業技術論의 建設時代(1878年~1910年)
- ⑤ 經營經濟學(BWL)에의 體系化와 擴充의 時代(1910/12년부터)
- ⑥ 一般經營經濟學(allgemeine BWL)의 統一과 深化 및 經營經濟政策에의 適用強化의 時代(1926년부터)

이러한 文獻史的인 接近方法의 比重은 비단 獨逸經營經濟學史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美國經營管理學의 歷史的研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를테면 「어윅크」와 「부렛치」(L. Urwick & E.F.L. Brech)가 그들의 主著인 「科學的 管理의 形成」⁽⁴⁾에서 「바베지」(C. Babbage), 「태일러」(F.W. Taylor), 「페이올」(H. Fayol), 「휘레트」(M.P. Follett) 등 주로 斯學創成期에 있어서의 主要한 研究者 13人의 學說을 年代順으로 列舉해서 그 人物 및 學說內容을 要領있게 概說함과 더불어 簡명한 文獻考證을 行하고 있다거나, 「메릴」(H.F. Merrill)이 역시 그의 主著 「管理의 古典」⁽⁵⁾에서 歷史的으로 著名한 16名의 先學들을 年代順으로 配列, 各論者의 主張가운데의 中核을 이룬다고 여겨지는 部分을 收錄해서 簡潔한 解説과 文獻考證을 곁들인 例는 그 好例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떠한 類의 經營學史에 있어서도 제각기의 觀點이나 立場에 따라 그 論述의 精疎度나 考證의 角度가 相違해 진다고 할 수 있으나, 文獻史的인 接近方法에 依할 때 보다 더 經營學의 歷史에 관한 幅넓은 鳥瞰圖를 提供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文獻史的 經營學史는 주로 先學들의 著書나 論文(따라서 人物과 學說)을 年代順으로 配列한 回顧的 記述을 그 中核으로 하기 때문에 諸學說相互間에 있어서의 理論의 發展의 關聯을 內面的으로 解明하는 것은 그 中心課題가 될 수 없어 2次的인 意義만을 지니게 되며, 따라서 企業의 實踐理論으로써 充分한 經營學의 理論體系를 確立한다는 未來志向의인 經營學史研究의 使命은 達成되기가 어렵다는 批判이 있다해도 아직까지는 文獻史的 接近方法이 經營學史研究의

(4) L. Urwick & E.F. L. Brech, The Making of Scientific Management, Vol. 1, Thirteen Pioneers, 1951

(5) H.F. Merrill, ed., Classics in Management, N.Y., 1960

典型이자 그 大部分의 경우가 되고 있다.

한편 經營學史에 있어서의 問題史的研究方法이란 過去와 現在에 있어서의 主要한 學說의 內容을, 그것이 成立하게 된 歷史의 背景과의 關聯下에서 選擇해서, 各學說의 價値를 歷史的 動機로 소급해서 判定하고자하는 一連의 接近方法을 가리킨다. 즉 實際에서 派生된 經營學的인 諸問題를 各其 時代別 特徵으로써 整理, 이와 함께 그러한 時代의 特徵으로써의 背景下에서 이루어져야 했던 各學說의 潮流와 內容을 關聯시켜 問題史的으로 把握하고자 하는 經營學史研究의 한 手段이다. 이러한 研究方法에 依할 때 各學說의 相互間을 貫通하는 內面的 發展의 關聯이 그러한 學說들의 成立을 要請하게 한 歷史의 背景을 基礎로해서 統一的(問題史的)으로 把握될 수가 있다고해서 흔히 諸學說의 單純한 回顧記述의 考察에만 始終되기가 쉬운 文獻史的方法보다도 더 幅넓은 研究方法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를테면 獨逸經營經濟學史의 경우 問題史的 經營學史의 代表者로 손꼽히는 「렛펠홀츠」(J. Löffelholz)의 다음과 같은 4段階區分⁽⁶⁾은 그 典型의 하나라 할 수 있다.⁽⁷⁾

- ① 르네상스(Renaissance)時代의 經營學
- ② 重商主義(Merkantilismus)時代의 經營學
- ③ 工業主義(Industrialismus)時代의 經營學
- ④ 社會的 市場經濟(Soziale Marktwirtschaft)時代(20世紀)의 經營學

이러한 問題史的인 接近方法은 비록 그 比重에 있어서는 文獻史的인 接近方法보다는 덜 하지만, 역시 獨逸經營經濟學史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美國經營管理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필리페티」(G. Filipetti)의 「經營管理學의 生成」⁽⁸⁾이 今世紀初頭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美國에 있어서의 社會經濟 및 企業의 發展을 5段階로 나누어 各段階의 特徵과 問題性을 概說하면서, 그러한 歷史的 要請에 따른 經營管理學의 理論的 深化와 領域的 擴大의 過程을 經營管理學의 創始者인 「테일러」(F.W. Taylor)의 主張展開으로써 統一的으로 把握하고자 한 것은 그 一例라 할 수 있다. 특히 「필리페티」는 같은 問題史의 手法을 驅使해서 구라파에 있어서의 斯學의 發展까지도 解明하고자 試圖한 점이 特記할만한 하며, 그 以外에도 「비러스」(R. Villers)나 「사이저러브」(O.J. Sizelove)등의 研究⁽⁹⁾는 바로 經營管理

(6) J. Löffelholz, Geschichte der Betriebswirtschaft und der BWL, Stuttgart, 1935

(7) (그 以外에도) W. Sombart, Der moderne Kapitalismus,

W. Sfarck, Die Geschichte der BWL in ihrer Beziehung zur sozialen Enturicklung, aus dem Englischen, Dordrecht, 1960

(8) G. Filipetti, Industrial Management in Transition, 1953

(9) R. Villers, The Dynamics of Industrial Management, Part 1, The Evolution of Industrial

學에 있어서의, 또 다른 問題史의 手段의 代辦이기도 하다.

그런데 問題史의 接近方法은 그 學史의 研究의 源泉으로써 비단 著書나 論文과 같은 學術的 文獻뿐만 아니라, 各種 營業帳簿, 會社定款等 一切의 業務用資料까지도 動員되기가 보통임으로 經營學史의 幅넓은 追跡이 可能하다고 하지마는 아직 量的인 研究面에서 充分한 發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實情이다. 그것은 問題史의인 手法이 단순히 過去의 主要學說에 대해서 考察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러한 主要學說의 背景이 되는 經濟社會와 企業에 관한 史的 考察도 併行해야 하는 莫重한 作業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問題史로써의 經營學史에 있어서는 各學說의 評價가 자칫 相對主義化(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하는 傾向이 짙기 때문에 特定한 歷史段階에서 成立된 各種의 個別的 理論이 지나는 歷史的 意義를 確定함에 그치게 되는 危險性이 介在하기가 쉬어진다. 따라서 問題史의 經營學史에 있어서는 文獻史의 經營學史에 있어서 보다도 未來志向의인 經營學史 本來의 課題를 充分히 達成하기가 더 힘들다고 할 수 밖에 없다.

<表> 兩大潮流에 따른 經營學史와 그 代表的 論者

經營學史	文獻史의 經營學史 (經營學說史)	經營經濟學史 : R. Seyffert, Über Begriff, Aufgaben und Entwicklung der BWL.
		經營管理學史 : L. Urwick & E. F.L. Brech, The Making of Scientific Management.
	問題史의 經營學史 (一般經營學史)	經營經濟學史 : J. Löffelholz, Geschichte der Betriebs wirtschaft und der BWL.
		經營管理學史 : G. Filipetti, Industrial Management in Transition

위의 表는 以上の 敘述을 一目標瞭然하도록 整理한 것으로써 現代經營學史가 그 接近方法에 따라 文獻史의 經營學史와 問題史의 經營學史로 兩大別되어지며, 또 經營學自體가 그 兩大潮流인 經營經濟學史와 經營管理學史로 區分됨으로써 그 代表的인 經營學史의 論者를 아울러 例學한 그림이다. 이 때 文獻史의 經營學史를 흔히 經營學說史라고도 일컬으며, 問題史의 經營學史를 보통 一般經營學史로 看做하는 思考方式은 經營學史研究에 있어서의 오늘날의 通念이 되고 있다.

經營學史의 研究方法에 있어 이렇듯 文獻史의이거나 問題史의인 것으로만 兩大別할 것이 아니라 그 以外에 第3의 方法으로 이른바 方法史의이라는 새로운 接近方法을 驅使함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主張하는 論者도 있다. 이를테면 美國經營管理學者인 「쿤츠」(H. Koontz)⁽¹⁰⁾가 바로 그 代表者이지만, 그

Management, 1954: O.J. Sizelove & M. Anderson ed., Fifty Years Progress in Management, 1910~1960, 1960

(10) H. Koontz, The Management Theory Jungle, The Journal of Academy of Management, Dec., 1961:— 이 論文을 契機로 해서 그 후에 經營管理學의 方法을 둘러싼 심포지움이 開催되었다. (H. Koontz ed., Toward a Unified Theory of Management, 1964)

는 文獻史로써의 經營學史가 주로 過去에 있어서의 主要學說을 回顧記述의 觀點에서 問題로 삼으며, 또 問題史로써의 그것은 過去에 있어서의 個別的 理論의 展開를 단순히 歷史的背景과의 關聯下에서 把握하고자 하는 試圖가 大部分이기 때문에 企業의 實踐理論으로써 充分한 經營學의 理論體系를 確立하기 위한 基礎研究로써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까지의 主要學說의 「方法」에 관한 內面的 發展의 關聯을 把握하는 것이 보다 先決問題일 것이라고 看做한다. 이러한 思考方式은 특히 經營經濟學에서 보다도 經營管理學의 歷史的 研究에서 派生되며, 오늘날의 經營管理學史의 올바른 研究를 위해서는 理論을 제각기 個別的으로 理解하기 보다도 하나의 統合된 理論體系로 묶고서 統一的으로 把握하는 것이 보다 더 效率의 일 것이라는 觀點에서 經營管理學史 固有의 研究方法로서는 응당히 「方法史로써의 經營管理學史」가 登場되어야 한다는 力說에서 비롯된다. 결국 方法史的 經營學史란 經營管理學에 관한 主要學說의 研究方法에 관한 充分한 吟味와, 經營管理學의 研究方法에 있어서의 內面的 發展을 解明하고자 하는 努力에서 緣由되는 經營學史의 새로운 接近方法의 하나라 할 수 있지만, 經營管理學 自體에 있어서의 方法論的 考察이 아직도 이렇다 할 比重의 業績의 出現으로 連結될 만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方法史로써의 經營管理學史」는 다만 「쿤츠」에 의한 問題提起의 段階에서만 맴돌고 있다고 할 수 밖에는 없어진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쿤츠」는 그의 「經營管理學의 混亂」⁽¹¹⁾이라는 論文을 통해 지금까지 거의 無視되어 온 經營管理學에 있어서의 方法論的 反省의 必要를 促求함으로써 經營學史(특히 經營管理學史)를 方法史的으로 研究하는 重要性을 처음으로 強調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括目的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는 그 論文에서 「페이올」(H. Fayol)以後에 있어서의 經營管理學의 發展을 念頭に 두면서, 오늘날에 있어서의 斯學의 混亂(jungle)된 管理論의 現狀을 批判, 이러한 混亂을 解決하는 方法으로써는 먼저 美國에 있어서의 管理學의 潮流를 管理問題에의 接近方法을 基準으로 해서 ① 管理過程學派 ② 經驗學派 ③ 人間行動學派 ④ 社會體系學派 ⑤ 意思決定理論學派 ⑥ 數理學派의 6가지로 分類·整理함과 함께, 그 각각의 特質을 檢討함으로써 이들 諸學派를 統合할 수 있는 그 어떤 經營管理學 固有의 理論確立의 必要性을 促求한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가 斯學의 方法論的 混亂을 克服하기 위한 方途의 하나로써 이른바 「經營管理學에 固有한 理論」과 「經營管理에 有用한 用具」으로써의 個別的 理論이 截別되어야 할 것을 主張한 것은 特記할만 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쿤츠」의 이 짧은 論文에서는 各派에 속하는 個個의 學說에 대한 자세한 吟味が 거의 行해지지 않고 있으며, 또 그 主張의 重點이 今日的이며 平面的인 經營管理學의 學派分類와 그 統合의 問題에만 두어지고 있기 때문에 經營管理學 自體의 生成 및 發展에 관한 歷史的 考察은 그다지 充分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根底에는 그런대로 過去의 經營管理學說에 관한 統合的인 史的 考察이 包舍되고 있다는 意味에서는 「方法史로써의 經營管理學史」의 研究를 위한 問題提起의 機能만은 發揮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方法史로써의 經營學史의 研究에는 자칫 오류가 범해질 危險性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은 方法史的 論者が 唯一하며 올바른 方法이라고 생각하는 經營管理學의 그 어떤 研究方法를 超越的으로 措定해서, 過去에 있어서의 모든 學說들이 오직 그러한 方向으로만 自己展開되어 왔으리라고 믿는 獨斷的 傾向을 갖게 되는 일이며, 또 그 結果 經營管理學史가 지니는 豐富한 多面的 內容을 客觀적으로 把握하는 努力을 잊어 버리고, 이를 主觀的 내지 超越的으로 類型化하는 危險性이 派生되기가 일쑤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方法史로써의 經營(管理)學史가 이러한 危險性을 回避하고, 客觀的인 理論을 提供하기 위해서는 그 前提로써 主要한 經營管理學說에 관한 精密한 文獻史的이거나 問題史的 考察을 行해야 하는 일이 역시 不可缺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그렇다면 經營學史의 接近方法으로는 오직 文獻史的이거나 問題史的인 것만이 그 前提가 되며, 이렇듯 問題提起의 段階에서만 맴돌고 있는 狀態에 있어서의 이른바 方法史的 經營學史는 아직은 考慮對

(11) H. Koontz, Ibid. 참조

象外的 接近方法이 될 수 밖에 없다.

第 2 節 經營經濟學의 發達(獨逸經營學史)

〈經營學의 歷史(엄밀하게는 經營經濟學의 歷史), 따라서 經營學의 起源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 것인가는 經營學自體의 成立問題와 關聯을 갖는 難題로써 論者와 觀點에 따라 제각기 相異, 그 어떤 統一된 見解는 없다. 이를테면 經營學을 近代의인 學問(science, Wissenschaft)으로써 看做하고자 하는 者는 그 起源을 前世紀末葉에서 찾으려 할 것이며, 또 經營學에 固有한 地盤을 提供하는 것은 大規模의인 工業經營이라 믿고, 주로 그러한 工場經營에 관한 理論과 實際를 核心으로 하는 經營學은 따라서 그 學問의 起源을 今世紀初에서 찾아야 한다고 力說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經營學을 現代의인 行動科學으로써 把握하고자하는 者는 經營學自體가 아직도 그러한 範疇로 아로 새겨질 수 있을 만큼 成熟되어 있지 않다는 理由를 들어 그 起源조차 別로 問題視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近視眼的인 見解는 經營學의 起源을 찾기 위한 하나의 見識일지는 모르되, 經營學을 한낱 形式的으로만 把握하고자 하는 思考方式의 發露일 따름이며, 經營學史를 적어도 文獻史的으로(실록 問題史的으로라도) 追跡해 보고자하는 者가 지니는 진지한 學究的인 見解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既述한대로 오늘의 經營學이 어떠한 意味에 있어서도 企業의 實踐理論의 解明을 前提로해서 生成되어진 實踐科學이라는 점을 考慮할 때 斯學의 科學化를 위한 歷史的 發展에 있어서의 生成過程은 實선 오랜 歷史를 지닌 까닭에서이다. 따라서 經營學의 歷史性을 考慮하며, 斯學의 科學化를 위한 歷史的인 生成過程을 돌이켜 볼 때 經營學의 起源은 마땅히 中世以後의 商業學(내지 商業經營學)에서 찾아져야 지당하다고 할 수 있다.⁽¹²⁾ 그것은 오늘의 經營經濟學이 中世의 商業學에서 緣由되며, 또 사실 그 당시의 商業學이 歷史的인 生成過程을 거쳐 점차 오늘날의 經營經濟學으로 科學化되기에 이르렀다고 믿어지기가 一般的이기 때문이다. 물론 經營의 가장 오랜 形態는 아마도 農業經營일 것임으로 經營學의 起源이 農業經營學에서 찾아질 수도 있겠으나, 經營學의 固有의 地盤은 아무래도 對自然關係를 주로하는 農業經營보다도 對人的·對社會的 關係를 基礎로 하는 商業經營에 있다고 봄이 옳을 것이기 때문에 經營學의 歷史는 商業經營學(내지 商業學)이 처음으로 學問으로써 集大成된 中世(17世紀)⁽¹³⁾를 그 起源으로 한다고 보아야 지당할 것이다.)

1) 經營學前史

거의 모든 部門의 研究가 그렇듯이 經營에 관한 研究도 애당초 實際的인 要求에서 그 發端을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經營처럼 歷史的으로도 日常的인 實踐과 깊이 關聯을 갖는 部門의 研究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經營의 가장 오래 된 形態의 商業經營에 관한 研究 역시 商業의 發生과 同時에 그 始作을 보게 되었다고 봄이 옳다. 그렇다면 『經營은 人間과 더불어 오래다』⁽¹⁴⁾거나 『經濟活動이 營營되는 곳에는 반드시 經營이 있게

(12) 물론 經營學의 歷史性을 考慮한다는 觀點에서는 經營學의 歷史를 하나의 無限定한 經營思想史로서 그 起源을 멀리 古代에까지 소급해서 把握하고자 하는 論者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B. Bellinger(Geschichte der BWL, 1967)나 C.S. George, Jr.(The History of Management Thought, 1968) 등이 바로 그러한 代辯者들이다.

(13) 文獻史的 經營學史의 觀點에서는 正確하게 J. Savary의 「完全한 商人」이 出版된 해인 1675年을 그 起源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14) D.A. Wren, The Evolution of Management Thought, Ronald Press, 1972, p. 3.

마련』⁽¹⁵⁾일 것이기에 商業經營의 歷史는 人類와 더불어 오래며, 商業經營에 관한 研究도 商業經營의 歷史와 더불어 그렇게 오래다라고 할 수 밖에는 없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無限定的인 意味에서의 經營의 起源, 따라서 商業의 起源을 問題視하는 것은 一般文化史的인 觀點이나 經營史的(내지 商業經營史的)인 觀點에서는 妥當할지 모르나 經營學의 基礎로서의 經營學史的인 觀點에서는 전혀 아무런 意味도 지니지는 못한다. 그것은 經營(經濟)學史는 「자이펠트」(R. Seyffert)의 말마따나 어디까지나 『經營經濟에 관한 理論(學問)의 歷史(經營經濟學)지 經營自體에 관한 經濟史(經營史)는 아니기 때문』⁽¹⁶⁾이다. 다시 말해서 商業(經營)에 관한 研究란 商業史(또는 商業經營史, 따라서 一般經營史)의 意味이며 商業(經營)學에 관한 歷史的 研究, 따라서 商業(經營)學史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비록 實際的인 要求에서 그 發端을 보게 된 經營에 관한 研究가 人類와 더불어 오래며, 또 經營의 가장 오래된 形態가 商業經營이라 하더라도(때문에 그러한 商業에 관한 研究가 商業의 發生과 同時에 그 始作을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商業自體에 관한 研究일 뿐 商業에 관한 學問, 즉 商業學에 관한 研究는 앞에서의 叙述에서처럼 비로소 17世紀에야 그 發端을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文獻史的 觀點에서는 「사바리」(J. Savary)의 「完全한 商人」(1675年)에 依해서 經營學의 前身인 商業學이 처음으로 理論的인 바탕위에서 學問的으로 體系化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經營學의 理論이나 學說에 관한 歷史的인 研究(經營學史的 研究)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經營自體에 관한 歷史的인 研究(經營史的 研究)도 어느 정도의 範圍內에서는 絶對的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經營學의 成立의 基盤에는 그 어떤 一定한 經濟의 發展段階를 必要로 하며, 이와 照應해서 一定한 經營의 發展段階도 必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一定한 經營의 發展段階에 관한 經營史의 理解를 통해 비로소 經營學史를 올바르게 把握할 수 있는 基盤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經營學은 어느면에서는 經營史와 經營學史의 제각기의 發展段階 내지 時代와 對應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經營學史의 研究에 있어서는 經營學史以前의 經營에 관한 研究, 따라서 經營自體에 관한 歷史的인 研究도 어느 정도의 範圍內에서는⁽¹⁷⁾ 必須的이다. 다만 經營史로서의 商業史라 하더라도 그 研究上 核心은 商業經營自體에 관한 一般史的인 面에 보다는

(15) R. Seyffert, Über Begriff, Aufgaben und Entwicklung der BWL, a.a.O., S. 7

(16) R. Seyffert, a.a.O., S. 31

(17) 「어느 정도의 範圍內」라는 表現은 經營史의 前史的인 觀點에서 商業經營까지도 包含한 一切의 (一般)經營史에 관한 廣範한 理解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商業經營에 관한 歷史的인 概略의 把握만을 뜻하게 되는 限定된 意味에서이다.

經營學史的인 觀點, 특히 文獻史的 觀點에서는 學問的이며 體系的인 理論의 缺乏 때문에 도저히 學史的인 範疇에 包含시킬 수 없는 性質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뜻에서 文獻史的 經營學史에서는 이 部分이 特別히 經營學前史라 일컬어진다.

결국 그러한 意味에서 經營學前史로서의 商業經營에 관한 文獻史的인 發端은 대충 14世紀의 伊太리가 그 中心이 된다는 것이 一般論이다. 그 理由는 비록 手記形式의 것이며, 또 正確한 年代는 알 수가 없다 하더라도 1335年서부터 1545年 사이에 伊太利人 「페고로티」(F.B. Pegolotti)에 의해 처음으로 作成되었다고 믿어지는, 商業經營에 관한 世界最初의 文獻이 伊太利에서 發見되기에 이르렀다는 事實에서 緣由한다. 비단 「페고로티」의 手記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잇따라 出現하게 되는 商業關係의 諸文獻이 그 모두가 伊太利人에 의한 業績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 않아도 中世에 있어서의 世界商業의 요람지는 사실 伊太리가 바로 그 中核이라 할 수 있으며, 유독 伊太利에서만 商去來 내지 商業經營에 관한 一切의 知識이나 經驗, 즉 國內外에 걸친 商業地理나 商業慣習, 各地의 特産物이나 生活樣式, 貨幣事情이나 度量衡, 簿記나 計算, 通信, 交通, 外換등에 관한 知識이나 經驗등이 이른바 營業에 관한 秘傳의 手記로써 『父에서 子로, 子에서 孫으로 擴充되며 改善된 바탕위에서 相續』⁽¹⁸⁾되어지는 過中에서 그 중 몇 개의 手記들이 公開되었기 때문에 文獻史的 經營學史的인 立場에서는 伊太利를 그 經營學前史의 震源地로 指稱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世界史에 있어서의 中世史의 特徵으로 「르네상스」(Renaissance)는 伊太利에서 開花하게 되며, 十字軍에 의한 東西交通이나 科學의 發達을 契機로하는 그러한 「르네상스」가 비단 文藝面에서의 復興뿐만 아니라 自然科學의 發展, 基督教의 世界觀의 崩壞, 人間의 自己發見, 人間의 世界의 成立, 隸屬의 人間의 自由的·主體의 人間에의 再生, 合理主義의 成立등의 端緒(따라서 그것은 人間性的인 自覺史로서의 人間精神構造, 世界構造變革의 問題)도 되는 것이었는데, 中世에서 近世에의 轉換의 主體로써 이러한 世界形成의 主役을 맡은 張本人이 바로 危險을 무릅쓰고 營利를 敢行하는 企業家精神의 구현자로서의 伊太利商人이자 伊太利에서의 商業이었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中世에 있어서는 商業만이 經濟의 集中的인 表現의 全部였을 따름이며 伊太리가 그 中核地였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의 商業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그것과는 달리 根本的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를테면 當時의 商業이란 繼續的인 이기 보다는 斷續的인 이었으며, 平和的인 이기 보다는 暴力的·略奪的인 이며, 自律的인 이라기 보다는 他律的인 이며, 더 나아가서 安定的인 이기 보다는 冒險的인 이며, 公正的인 이기 보다는 秘策的·暴利的인 이었다고 할

(18) E. Weber, Literaturgeschichte der Handelsbetriebslehre, a.a.O., SS. 6~7

수 있다. 다만 그 社會的·歷史的 機能으로서의 交通을 열며, 商品의 賣買를 통해 文化를 交換하며, 傳播하며, 精神的 革命을 통해서 世界를 變化시키는 重要한 契機가 된 것만은 否認할 수는 없다. 이러한 時代에 時代轉換이라는 世界史的 役割을 다 한것이 伊太利商人이 었지만, 그러한 伊太利商人에 依해 營爲된 伊太利 諸都市, 특히 「제노아」, 「프로렌스」, 「베니스」 等地에서의 商業이야말로 經營學前史에 있어서의 劃期的인 特徵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都市에서 固有의 商業이나 貿易의 發展과 함께 비로소 外換業이나 銀行業등이 成立, 크게 繁榮하였기 때문이다. 銀行業이나 貿易業의 發達과 함께 世界最初의 手票나 어음, 또는 複式簿記등 商去來에 必要한 一切의 商業手段이 發明되기에 이르렀다는 事實은 이미 一般商業史가 가리키는데로이다. 이처럼 伊太利가 적어도 17世紀末葉까지도 世界商業의 搖籃地며 世界의 唯一無二한 商業學의 教師格이었던 事實도 쉽게 수증되어지게 마련일 것이며, 이러한 事實이야말로 商業經營에 관한 各種의 知識이나 經驗에 대한 手記가 이룩되어야 할 背景을 提供해 주며, 바로 그러한 意味에서 「프로렌스」의 商人인 「페고로티」(F.B. Pegolotti)의 世界最初의 手記가 文獻史的 經營學前史의 發端을 장식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한 手記에 이어 그 후 수많은 活字本들이 出版됨으로써 伊太利에서의 商業은 實際와 理論面에서 더욱 隆盛의 頂上을 달리게 된다.

그런데 「페고로티」의 手記에 이어 最初로 活字로 印刷된 最古文獻으로는 「파티오리」(Luca Pacioli)의 『算術, 幾何, 比 및 比例의 總覽』⁽¹⁹⁾이 있게 되며, 그 후 「코트그리」(B. Cotrugli)의 『商業 및 完全한 商人에 대해서』⁽²⁰⁾, 「페리」(G.D. Peri)의 『商人』⁽²¹⁾ 등이 잇달게 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파티오리」의 그것은 最初의 複式簿記에 관한 敘述이 描寫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商業學史上 劃期的인 業績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더구나 簿記의 成立은 바로 資本의 成立을 意味하며, 나아가서 經營의 技術的 中核의 成立을 意味하기도 하기 때문이며,今日の 經營學이 簿記會計를 하나의 母胎로 해서 이와 깊은 關聯을 맺으면서 恒時 計算의 思考를 基礎로 하고 있다는 事實로 미루어 보아도 「파티오리」의 業績은 높이 評價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자이펠트」(R. Seyffert)의 表現따마나 그러한 文獻이 아직도 단지 『去來技術의 및 計算技術의인 指導書』(die verkehr- und rechnungstechnischen Anleitungen)⁽²²⁾에 不過하며, 전혀 『學術的인 問題提起가 胎無』⁽²³⁾인 文獻이며, 또 「베버」(E. Weber)의 描寫대로 『全體로서도 部分으로서도 이른바 嚮導概念(leitender

(19) Luca Pacioli, Summa de Arithmetica, Geometria, Proportione et Proportionalita, Venezia, 1949

(20) B. Cotrugli, Della Mercatura et del Mercante Perfetto, Venezia, 1494

(21) G.D. Peri, il Negotiante, Genoa, 1638

(22) R. Seyffert, Über Begriff, Aufgaben und Entwicklung der BWL., a.a. O., S. 34

(23) R. Seyffert, a.a.O., S. 32—"Eine wissenschaftliche Problemstellung ist nirgends feststellbar."

Gedanke)이 缺如된 文獻』⁽²⁴⁾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觀點에서 當時의 商業學的 知識의 寶庫(reiche Fundgrube)며, 後日の 商業學에 관한 學說의 建設을 위한 基礎(土臺石)가 된 業績』⁽²⁵⁾인 것만은 틀림없다.

2) 商業學的 集大成

오늘날의 經營學的 基盤을 이루는 商業學이 學問(eine wissenschaftliche Lehre)으로써 비로소 體系化되기에 이른 것은 佛人 「사바리」(J. Savary)에 의해 著述된 「完全한 商人」이 처음으로 出版되었을 때(1675年)부터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미 叙述한 대로이다. 사실 「자이펠트」(R. Seyffert)의 表現대로 이른바 經營學前史를 構成하는 그 때까지의 許多한 著述들은 한결같이 『素材의 取扱이 소홀하며 어느 局面에 단 置重한 非體系的인 것이기 때문에 學術的 取扱(Wissenschaftliche Behandlung)이라고 일컬어지기가 困難』⁽²⁶⁾해서 『商業經營의 모든 局面이 秩序整然하게 論述되었을 때 비로소 學術的 取扱이라 일컬어질 수 있다』⁽²⁷⁾는 뜻에서는 「사바리」(1622~1690)의 業績서부터 바로 「자이펠트」가 말하는 「體系的인 商業學時代」(Die Zeit der systematischen Handlungswissenschaft)⁽²⁸⁾가 시작된다고 봄이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商業學이 단순한 「去來技術的이거나 計算技術的인 指導書時代」⁽²⁹⁾的인 性格의 것이 아니라 적어도 「學術的인 取扱」의 意味에서의 學問이기 위해서는 비록 유치한 初期的인 形態의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먼저 商業經營에 必要한 知識이나 經驗의 集成으로서의 自然發生的인 商人學, 다시 말해서 商業經營의 主體論으로서의 形態를 갖추어야하며, 또 商業經營의 對象論 내지 客體論으로서의 商品學的 形態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商去來學(Handlungswissenschaft)으로써의 去來方法論이나 行動論 내지 計劃論의 形態를 갖추어야 함이 原則이다. 더 나아가서 商業經營이 行해지는 「內外的 場」, 즉 市場學으로써의 市場構造論의 形態도 갖추어야 할 것은 물론 其他 交通論, 通信論, 記帳計算論, 貨幣論, 度量衡論 등으로써의 갖가지 形態도 아울러 갖추어야 學問으로써의 商業學이 비로소 云云되어지는 바탕이 생겨 난다고 할 수 있다. 要컨대 오늘날 商業經營의 主體論, 方法論, 行動論, 對象論 등을 中心으로 한 미크로의인 觀點에서 우선 商業經營學(Handelsbetriebslehre)이 成立하며, 그 후에 商業經營의 對象論이나 「商業의 場」을 問題로 하는 市場論이나 交通論 등을 中心으로 한 매크로의인 觀點에서 商業經濟學(Handelswirtschaftslehre)이 成立하게 되었다고 보는 見解가 壓倒的이지만, 어찌되던 비록 이러한 商業經營學

(24), (25) E. Weber, Literaturgeschichte der Handelsbetriebslehre, a.a.O., SS. 6~7

(26), (27) R. Seyffert, a.a.O., S. 36

(28), (29) R. Seyffert, a.a.O., S. 34

과 商業經濟學의 初期的 混合形態의 典型이라 하더라도 「사파리」의 「完全한 商人」이야말로 「하나의 學問」(eine Wissenschaft)으로써 最初로 體系化된 商業學의 嚆矢라고 看做됨이 一般的이다.

이토록 「사파리」(J. Savary)의 「完全한 商人」(Le parfait négociant)이 經營學史上 最初의 經營學關係文獻으로써 그 比重이 莫重한 것은 이 文獻으로 因해 商業學自體가 처음으로 學問的으로 體系化될 契機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써 「자이헬트」가 그의 經營學史의 時代區分에 있어 經營學前史(早期)時代와 그 以後의 體系化時代와의 境界의 基準으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劃期的이며, 또 방대한 業績의 集大成이었었다는 理由에서이다. 즉 全二卷으로 構成된 이 文獻은 그 第1卷만 하더라도 大版2段組 561페이지(獨譯本 848페이지)에 이르는 大書로써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餘年前에 出版되었다는 事實조차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巨作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 初版이 1675년에 出版되어 마지막으로 11版이 1757년에 계속되기까지 獨語, 和語, 英語, 伊語 등 各國語로 무려 數百萬部가 번역·出版되었다는 事實에서도 그 經營學史에 있어서의 文獻史的 研究上的 比重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고 있다.

어찌되던 「사파리」의 「完全한 商人」은 한마디로 表現해서 經營主體를 取扱하는 商人論이자 企業形態論이며, 經營客體를 取扱하는 商品學이자 經營環境을 問題로 삼는 市場論이며 또 顧客이나 商人間 및 메이커와의 商去來論이자 販賣나 購買의 經營政策을 가리키는 商業經營論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中近東, 아프리카, 아메리카, 北海, 西海에 이르기까지의 商品事情이나 其他 必要한 一切의 商業事情을 說明하는 貿易論이며, 外換論이자 貨幣, 度量衡, 商慣習, 交通·輸送·保管의 關係, 關稅問題까지도 解明하는 商業百科辭典이라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大量生産을 取扱하는 最初의 工業經營書이기도 하다. 다만 「사파리」自身이 博識家이긴 하되 學者가 아니라 官吏이기 때문에⁽³⁰⁾ 그 方法論이나 體系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幼稚함을 면치 못하며, 특히 『本書의 모든 問題의 出發點은 商人 그 自體와 그 活動이며, 一切의 것의 運營의 中心은 客觀化된 經營이 아니라 人格』⁽³¹⁾

(30) 원래 「사파리」는 巴里의 어느 辯護士 밑에서 修業하던 法律助手가 그 시작이며, 그 후 織物都 賣商을 自營함으로써 一躍 巨富가 되어, 그 過程에서 商業學 및 商人學에 관한 幅넓은 知識을 얻게 되었다. 그 當時의 벼락 商人이 그렇듯이 그도 實業界에서 官界로 轉向하여 「루이」14世의 王室 直屬의 高位官吏가 되었으며, 그 후 重商主義者인 「콜베」(Colbert)의 協力者가 됨으로써 佛蘭西 最初의 商法典의 草案作成者로 有名하다. 그의 影響下에서 作成된 1673년의 「商業條例」(Ordonnance de Commerce), 즉 이른바 「사파리 法典」(Code Savary)과, 그의 建白書, 講演, 論說 등을 모아 統一된 體系로 公刊된 책이 바로 「完全한 商人」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책의 大部分이 商人과 商業經營에 관한 대목인데도 그 以外에 約 35%의 該當部分이 유독 商法에 관한 대목으로 차지되고 있다는 점이 그가 주로 法律을 담당하던 官吏라는 事實의 端的인 表現이라 할 수 있다.

(31) J. Löffelholz, Gesdichte der Betriebswirtschaft und der BWL, a.a.O., S. 228

인 점에 그 時代에 있어서의 歷史的限界를 느끼게 한다. 왜냐하면 重商主義라는 이름으로 特徵지어지던 그 當時만 하더라도 科學思想이 幼稚하여 아직도 社會科學이 그 萌芽조차 擘트지 못한 時代 탓으로 商業學이나 商業經營學이라는 學問的 名稱이 正式으로 成立되지 못한 때였으므로 當時의 經濟는 商業, 특히 外國貿易에 集中的으로 表現되며, 바로 商人이 經濟人的 代表였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바리」의 著書는 文字 그대로 「商人論」이 그 核心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바리」의 「完全한 商人」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商業學이 처음으로 體系化될 바탕이 생겨났었다는 意味에서는 經營學史上 劃期的인 業績으로 評價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一部와 二部로 나누어진 이 大著는 대충 그 큰 目次만 간추려봐도 다음처럼 그 取扱內容의 廣範함을 짐작할 수가 있다.

第1部

第1編 序論

第2編 商業의 徒弟制度論

第3編 手數料商人論과 어음論

第4編 獨立商人論

第2部

第1編 都賣商人論

第2編 外國貿易論

第3編 仲介商業論

第4編 破產法論

第5編 第2編의 補充論

위와 같은 大目次로 이어지는 「사바리」의 「完全한 商人」은 대체로 「쾨트호프」(E. Sundhoff)가指摘하는 것처럼 이른바 「同心圓的 記述方法」(Form der Darstellung in konzentrischen Kreisen)⁽³²⁾에 依해 商業의 發展이 商業經營의 主體인 商人의 自然的 發展段階에 따라서 『徒弟→小賣商人→都賣商人→貿易商人』順으로 「同心圓的」으로 叙述됨을 그 特徵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固有商業」의 記述에는 原始的인 企業形態로서의 組合이나 會社의 問題뿐만 아니라 服務規律이나 商人道德의 問題도 包含하고 있으며, 그 以外에 「補助商業」의 有用性에 관한 叙述도 걸드려지고 있다. 물론 著書名이 「完全한 商人」이라 해서 주로 商人을 對

(32) E. Sundhoff, "Jacques Savary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BWL", Betriebswirtschaftliche Forschung und Praxis, Jq. 8, 1956, S. 203

象으로 한 商業主體論이 그 核心이라 하더라도 앞서서도 既述한대로 商品學을 中心으로 한 商業經營의 對象論에도 廣範히 言及되고 있으며, 其他「商業의 場」을 問題로 하는 市場論이나 商去來學으로서의 商業行爲論 내지 商業政策論에 관한 敘述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 當時의 商去來方式이란 대략 相對賣買, 注文賣買가 爲主였기 때문에 價格機構論에 관한 대목이 오늘날처럼 特別히 取扱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쉬운 部分이라 하더라도, 全體적으로 商人과 그 商業經營에 관한 諸問題가 豫想以上으로 廣範하게 取扱되고 있다는 점에 經營學史上 最初로써의 文獻史的 比重이 두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中世에 있어서의 世界商業의 요람지가 伊太利였으며, 또 商去來 내지 商業經營에 관한 一切의 幅넓은 知識이나 經驗이 伊太利人에 依해 傳承되어 왔음에도, 眞實 學問으로서의 하필 「사바리」라는 佛蘭西人에 依해 體系化되기에 이르러야 했었다는 「아이러니컬」한 理由는 첫째로 伊太利人들의 排他的이며 他人警戒의인 國民性에서 緣由한다. 즉 商業과 그 經營에 관한 一切의 知識이나 經驗은 다만 『父에서 子로, 子에서 孫으로만 繼承되어 나가는 家族的 秘傳』으로써 家族以外的 그 어떤 他人에게도(설사 同鄉人이라 하더라도) 一切의 口傳이나 傳授가 禁止되어온 無形財의 家寶의 一種이어서, 앞서 例擧된 「페고로티」(E. B. Pegolotti)의 手記나 「파티오리」(Luca Pacioli)의 活字本등은 『어찌다가 새어 나간 그중의 一部』일 뿐, 그 大部分의 경우 『널리 알려지며 가꾸워질 바탕이 전혀 없었던 秘傳』이였었다는 것이 그 理由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하긴 그 어떤 分野의 知識이 萬人에 依해 平等하게 取扱되지 못하고, 어느 限定된 世界에서만 간직될 때 都是 學問으로서의 發達의 餘裕가 全無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수 밖에 없다.

또 그 以外的 理由로는 中世의 伊太利를 中心으로 한 地中海商圏이 「콜벨」(Colbert) 등의 重商主義派의 대두와 더불어 暫次 佛蘭西, 西班牙, 폴투갈, 和蘭 등을 中心으로 한 大西洋商圏으로 移延하게 된 事實을 指摘할 수도 있다. 즉 世界商業의 中核地 自體가 伊太利를 中心으로 한 地中海地域에서 暫次 佛蘭西를 中心으로 한 大西洋地域으로 옮겨진 것이 그 두 번째 理由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존트호프」(E. Sundhoff)가 『「르네상스」는 伊太利人으로 하여금 歐羅巴의 商業學教師格으로 浮上시켰지만, 重商主義와 더불어 大西洋諸國이 歷史의 前面에 浮刻되어짐으로써 그 任務는 끝장을 보게 되었으며, 특히 佛蘭西에게는 世界의 商業強國일 수 있는 機會가 주어졌다』⁽³³⁾고 指摘하는 대로 伊太利에서의 傳統的 商業經營이 時代的 變遷에 따라 그대로 佛蘭西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佛蘭西에서의 集約的인 去來方法의 增大와 植民地所得의 增加와 함께 商業經營의 規模自體가 產業의 大規模

(33) E. Sundhoff, a.a.O., S. 198

經營으로 變貌하기까지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伊太利人과는 달리 開放的이며 進取的인 佛蘭西人에 依해 그러한 大規模商業經營을 바탕으로 한 商業學이 學問으로써 처음으로 體系化되었다는 事實은 그 自體가 벌써 事必歸正的인 事實일 수 밖에도 없다. 그러한 意味에서도 한마디로 表現해서 「사바리」야 말로 이미 概觀한 것처럼 새로운 時代의 先覺者로써 伊太利의 商業學을 繼承한 것뿐만 아니라, 그 集大成者이자 商業經營學에의 展開者이며, 또 自己의 豊富한 經驗에 따른 劃期的인 大著의 著者로서 商業經營學의 發達의 頂點에 서게 된 貢獻者라 할 수 있다. 다만 「사바리」의 「完全한 商人」이 겨우 그의 아들에 依해 再編集, 公刊된 「商業百科辭典」⁽³⁴⁾ 以外에는 오래도록 佛蘭西人에 依한 단 한권의 後續打도 이어집이 없었다는 神奇한 事實을 除外하고는⁽³⁵⁾ 「사바리」 自身이 어떠한 意味에서도 文獻史的 經營學史上 찬란히 빛나는 劃期的인 存在인 것만은 確實하다.

비록 佛蘭西에서만은 「사바리」以後 佛蘭西人에 依한 後續打的인 業績이 今世紀初에 이르기까지 殆無했었다고는 하더라도 그의 「完全한 商人」이 그대로 繼承되어 오래도록 『모든 著述의 源泉(Quelle)이며 模範(Vorbild)』⁽³⁶⁾이 된 나라가 바로 오늘의 經營經濟學의 總本山인 獨逸이다. 다시 말해서 「사바리」에 依해 비로소 獨逸經營學이 開花되기 시작하며, 또 그의 著書에 依해 비로소 獨逸經營學이 獨自의인 體系를 갖출 바탕이 마련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사바리」의 「完全한 商人」이 獨逸經營學에 미친 影響은 실로 絕對的이라는 表現을 빌려야 할만치 그렇게 莫重하게, 그러기에 「자이펠트」(R. Seyffert)조차 『「사바리」의 著書는 오래도록 獨逸에 있어서의 最高位에 속하는, 그나마 唯一한 專門家였었다⁽³⁷⁾』고 喝破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사바리」에 依한 業績이 당시의 商業學 (따라서 오늘의 經營學)의 先進國이었던 佛蘭西에서가 아니라 당시의 商業學(따라서 오늘의 經營學)의 後進國이었던 獨逸에서 繼承되어진 理由는 伊太利人의 國民性이 排他的이며 他人警戒的이었던 것과는 달리 佛蘭西人의 氣質이 너무도 進取的·開放的인 탓으로 『새로운 것에는 넘적 달려들기를 좋아하지만 오래가지 않는 習性』과 맞먹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佛蘭西가 오늘날 世界流行의 中心地가 되어야 했던 가닭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佛蘭西人의 氣質과는 달리 獨逸人들의 그것은 『새로운 것에 넘적 달려드는 習性은 아니되 일단 달려들었다면 自己것으로

(34) Jacques Savary des Bruslons & Philemon-Louis Savary, Dictionnaire universel de commerce, Paris, 1723~1730

(35) 다만 「사바리」以後 거의 250年 後에 佛蘭西人 鑛山技師 「페이올」(H. Fayol)에 依해 經營管理學에 관한 最初의 文獻인 「産業 및 一般의 管理」(Administration Industrielle et Générale, 1916)가 出版되기까지.

(36), (37) R. Seyffert, a.a.O., S. 37

만들어 버려야 속시원해 하는 習性』탓으로 「사파리」의 業績이 獨逸에서 그토록 오래 獨逸人自身の 「源泉」이자 「模範」으로 君臨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以外에도 獨逸에서는 商業學에서 暫次 經營學으로의 轉化가 試圖되어져 마침내 商業經營學이 工業經營學의 대두와 함께 經營經濟學으로 飛躍的인 發達을 이르게 된데에 반해 佛蘭西에서는 英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商業學이 經營學으로 發展하지 않고, 도리어 經濟學으로의 轉身이 試圖되어 마침내 經營學이 經濟學으로 吸收된 채 오래도록 未分化의 狀態가 계속되었다는 事實도 그 理由의 一端이라 볼 수 있다. 어찌 되던 結果的으로는 獨逸이 오늘날 經營學의 先進國으로써 君臨하게 되며, 「사파리」에 依해 처음으로 經營學에의 기틀이 學問的으로 마련된 佛蘭西가 오늘날 오히려 經營學의 後進國으로 轉落해야 했다는 結果는 文獻史的 經營學史上 또 하나의 「아이러니컬」한 史實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사파리」의 「完全한 商人」이 獨逸經營學에 影響을 미친 過程을 文獻史的으로 考察할 때 대략 다음과 같이 3時代에 걸친 3代表者로 代辯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3時代에 걸친 3代表者뿐만 아니라 그 時代나 그 以後에 나타난 許多한 業績의 著者들이 「사파리」의 경우처럼 事業家나 官吏가 아니라 한결같이 學者였었다는 점이 特記되어질 만하다. 이 점은 美國經營學과 獨逸經營學의 文獻史的 比較面에서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美國經營學의 始祖라고 自他가 共認하는 「테일러」(F.W. Taylor)나 「포드」(H. Ford)뿐만 아니라 그 初創期에 있어서의 許多한 文獻的 業績들의 著者가 한결같이 技師나 職工場이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事實에서도 오늘의 獨逸經營學과 美國經營學의 本質的 差異點이 由來되어질 수도 있다는 見解를 披歷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模倣時代(Paul Jakob Marperger, 1656~1730)

「사파리」의 「完全한 商人」을 獨逸에 紹介함에 至大한 貢獻을 남긴 獨逸最初의 商學者가 바로 「말펠거」(P.J. Marperger)이다. 그는 獨逸에 있어서의 最初의 商業學建設者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著作活動도 活潑해서 都合 60餘卷의 文獻的 業績을 자랑하나, 그 거의가 「完全한 商人」을 模倣하거나 補完한 것이 大部分이다. 때문에 「말펠거」라면 그의 著作活動보다도 獨逸에서의 商業教育을 위한 講習所나 高等教育機關의 設立과 商業教育用辭典의 編纂을 위해 盡力한 業績이 더높이 評價되는 學者이기도 하다. 하긴 「말펠거」의 뒤를 이어 「휴브너」(Hübner), 「바이어」(Beier) 또는 「보온」(G.C.Bohn)등의 諸學者에 依해서도 商業教育用辭典의 編纂이나 其他의 著述活動이 계속되었으나, 그 結果는 大部分 斷片的인 것의 集大成이자, 또 그 모두가 「完全한 商人」을 模倣 내지 補充한 것이어서 그 以後에 「루도비치」(K.G. Ludovici)에 依해 올바른 意味에서의 世界最初의 商業辭典이 出版되기까지는 이 무렵이 한낱 「사파리」의 模倣時代에 不過했을 따름이다.

(2) 轉換時代(Karl Günther Ludovici, 1707~1778)

「사바리」(完全한 商人)의 實踐的 體系의 模倣時代에서 獨自의인 理論化에의 轉換時代로 의 契機가 된 것은 「루도비치」(K.G. Ludovici)의 業績에서부터라 할 수 있다. 물론 獨逸에서 「사바리」의 影響을 받은 것은 비단 「말펠저」以來의 一群의 模倣時代派뿐만 아니라 『17世紀부터 19世紀에 걸친 거의 大部分의 著名한 著者들은 「사바리」의 著書를 그 原典으로 삼지 않았던 경우가 殆無』⁽³⁸⁾였을 정도이기 때문에 「루도비치」라 해서 그 例外는 아니다. 다만 「루도비치」以前の 模倣派들은 「사바리」의 實踐的 體系를 글자 그대로 답습함에 그친데에 반해 「루도비치」의 業績은 그러한 實踐的 體系를 처음으로 理論的(學問的)인 體系로 試圖해 보고자 한 점에 그 特色을 찾을 수 있다. 더구나 「루도비치」는 애초부터 大學教授였기 때문에 「자이펠트」(R. Seyffert)가 指摘한대로 『「루도비치」야말로 大學教授側으로부터의 商業學最初의 學問的 代表者』⁽³⁹⁾였다는 점에서 그의 大作인 「公開商人大學 또는 完全한 商人辭典」⁽⁴⁰⁾은 獨逸經營學에 있어서의 最初의 獨自의 體系에 依한 理論的 文獻으로 評價되고 있다.

全5卷으로 된 그의 略稱 「商人辭典」은 約 半卷分에 該當하는 附錄(Anhang)으로 添加되어, 全體적으로 볼 때 約 50%는 商業學에 관해, 40%는 商品學, 그리고 나머지 10%部分이 商業地理에 관한 대목으로 되어 있다. 또 그 體系는 「알파벨」順으로 區分된 辭典式으로 꾸며지고 있어 商業學의 習得이 容易해지도록 配慮되고 있다. 따라서 그는 그 著書에서 結論적으로 商業教育의 重要性을 強調하며, 商業에 관한 高等教育機關의 設置를 力說하고 있다. 비록 「루도비치」의 業績이 이렇듯 「사바리」의 模倣時代에서 獨自의인 理論化에의 轉換時代의 契機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사바리」의 깊은 影響이 「商人辭典」의 到處에서 發見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以後에 이어지는 「로이크스」(M. Leuchs)야말로 참된 뜻에서의 獨逸的 商業學의 集大成者라 할 수 있다.

(3) 體系化時代(Johann Michael Leuchs; 1763~1836)

물론 「로이크스」(J.M. Leuchs)의 世紀的인 業績이 出現하기까지 「루도비치」의 뒤를 이어 許多한 文獻들이 洪水처럼 쏟아져 나와, 거의 40年間의 이른바 商業學의 全盛時代를 謳歌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를테면 1763년에 出版된 마이(J.K. May)의 商業學入門(Versuch einer allgemeinen Einleitung in die Handlungswissenschaft)를 비롯하여 「융」(Jung, 1785), 「어이러」(Euler, 1790), 「슈만」(Schumann, 1795), 「벨구하우스」(Berghaus, 1796), 「부제」

(38) E. Sundhoff, a.a.O., S. 210

(39) R. Seyffert, a.a. O., S. 38

(40) Eröffnete Akademie der Kaufleute oder vollständiges Kaufmanuslexikon, 5 Bd., Leipzig, 1752~1756

(Buse, 1798)의 수많은 文獻의 業績으로 인해 18世紀 後半이 마치 獨逸商業學의 全盛時代 인양 빛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業績들의 大部分이 앞서의 「루도비치」의 例에서 처럼 비록 「完全한 商人」의 模倣時代에서 獨自의인 理論化에의 轉換時代의 特色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到處에서 「사파리」의 깊은 影響이 發見되어질 뿐만 아니라, 商業學의 核心이 역시 商業主體로서의 商人이라는 人格에 두어졌다는 점에서 舊態依然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商業學을 例外없이 “Handlungswissenschaft”(商去來學)라고 일컬을 정도로 商人을 中心으로 한 商去來의인 面에서만인 說明이 爲主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Handlungswissenschaft”의인 商去來學을 商業學이라는 오늘날의 正式名稱인 “Handelwissenschaft”로 發展의으로 體系化시킨 學者가 다름도 아닌 「로이크스」(M. Leuch)의 「商業의 體系」(System des Handels, 1801)인 것이다.

이 文獻은 비록 「루도비치」나, 멀리는 「사파리」의 著作들에서 발췌·利用되는 部分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과는 달리 그 緊密한 相互關聯性과 理論的 進化面에 있어서는 獨創的이며, 많은 現象에서 基本的인 것이나 合法則性을 認識하고자 한 努力이 높이 評價』⁽⁴¹⁾되어야 마땅하다. 이를테면 「루도비치」의 業績은 商人을 中心으로 한 實學的인 性格의 商去來學(Handlungswissenschaft)의 集大成(一例로 그의 「商人辭典」自體가 實學的)인 점에 비해 「로이크스」의 그것은 商業全般에 걸친 總合的인 理論과 實際에 관한 商業學(Handelwissenschaft)의 集大成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1800年代란 바로 工業社會의 대두와 함께 商業社會에서 產業社會로의 轉換期를 뜻하며, 이러한 產業社會의 初期에 있어서는 商人이라는 人格의 主體보다도 產業이라는 制度化된 組織體가 中心이 되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렇듯 「로이크스」에 依해 商業學自體가 舊態依然한 “Handlungswissenschaft”에서 새로운 形態의 “Handelwissenschaft”로 體系化되기에 이른 것도 時代的 要請의 탓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로이크스」의 「商業體系」(System des Handels)는 都合 4版이나 改編·重版된 大作으로써(이미 1804年の 初版分만도 總 592페이지) 經濟에 있어서의 分業의 問題로부터 出發, 商業學自體를 이룬바 私的 商業學(Privat-handelwissenschaft)과 國家商業學(Staatshandelwissenschaft)으로 區別하는 體系化를 이루어 놓은 것이다. 私的 商業學이란 個別企業의 立場에서의 商業이라는 組織體에 관한 一切의 理論과 實際를 가리키며, 國家商業學이란 市場, 輸送手段, 金融機關등을 비롯해서 오늘의 商業政策의인 部分의 說明이 그 大部分이 되고 있다. 결국 「로이크스」는 單純한 商業知識으로써의 商去來學(Handlungswissenschaft)과 科學으로서의 商業學(Handelwissenschaft)과를 區別해서, 從來의 商業知識을 中心으로한

(41) E. Sundhoff, a. a. O., S. 211

商去來學을 商業理論을 中心으로한 商業學으로 昇格시킨 것이다. 이제 대략 3部作으로 루어지는 「商業體系」의 主된 目次단을 간추려 봐도 다음과 같다.

1部 私的 商業學(Privat-handlungswissenschaft)

1. 交換手段論
2. 計算論
3. 商業論
4. 簿記論
5. 投機論

2部 國家商業學(Staatshandelswissenschaft)

1. 商品販賣促進을 위한 諸施設; 市場, 見本市場等
2. 商品輸送을 위한 諸施設; 各種輸送手段
3. 金融機關
4. 各種政府規制

3部 商業論(Handelskunde)

1. 商品論
2. 商業地理
3. 商業史

「로이크스」(M. Leuchs)의 「商業體系」(System des Handels)가 出版된 해로부터 그 後 約 100年間, 正確하게 表現해서 1804年서부터 1898年(94年間), 즉 19世紀의 全般을 가리켜 經營學史家들은 한결 같이 입을 모아 「商業學의 갑작스러운 消滅(Weber)」, 「商業學의 退步(Pennndorf)」, 「商業學의 蔑視(Hellauer)」등 비극 그 表現에 있어서는 약간씩의 差異가 있다 하더라도 『商業學의 衰退時代』⁽⁴²⁾ 입을 絶叫하고 있다. 왜냐하면 「로이크스」以後 갑작스레 商業學關係의 文獻다운 文獻이나 學者다운 學者의 그림자조차 찾아 볼 수 없는 時代가 到來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時期에 이르면 「린드부름」(A. Lindwurm)에 의해 「商業經營學 및 世界貿易의 發展」(Die Handelsletriebslehre und die Entwicklung des Welthandels)이 1869년에, 그리고 「에밍하우스」(A. Emminghaus)에 의해 「一般工業經營論」(allgemeine Gewerkslehre)이 1868년에 出版되었다고는 하더라도, 前者의 경우는 商業이라는 制度化된 組織體에 관한 叙述이 전혀 缺如된 非體系의인 著述이며, 또 後者의 경우 商業經營에 보다는 주로 工業經營에 관한 叙述이 展開됨으로써 商業學關係의 文獻이라고는 할 수 없어, 今日的 觀點에서는 이 時期가 마치 「商業學 내지 商業經營學의 暗黑時代」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約 19世紀全般에 걸쳐 「로이크스」를 끝으로 이처럼 商去來學을 비롯한 一切의 商業學關係의 文獻이 그 자취를 갖추어야 했던 理由를 「자이펠트」(R. Seyffert)는 다음처럼

① 商業學에 대한 實業界의 關心의 後退(왜냐하면 暫次 大規模生産方式의 出現으로 商業技術보다도

(42) R. Seyffert, a.a.O., S.42 (「자이펠트」는 그의 文獻史의 經營學史上 이 時期를 第3期로 時代區分하고 있다.)

生産技術의 習得에 더 많은 關心이 쏟렸기 때문)

- ② 經濟學(官房學)의 部分領域으로서의 商業學의 取扱(때문에 官房學이 暫次 國民經濟學으로 吸收되는 渦中에서 그 一部로서의 商業學部分에 관한 學術的인 講義나 專門的인 文獻이 去勢되어질 수 밖에)
- ③ 商業學校制度의 缺陷(理論보다도 實際的인 技術에, 個別經濟的觀點에서보다도 國民經濟的인 觀點에 그 重點을 置換시킨 당시의 商業教育制度自體가 자연 商業學의 衰退를 가져 올 수 밖에 없었다.)

등의 點이라고 指摘한다. (43)

그러나 「자이펠트」는 오히려 이 時代야말로 商業學을 母體로 한 經營經濟學 胎頭에의 新紀元이 된다고 絶叫하고 『이렇듯 一世紀間의 空白은 생겼지만 오늘날의 經營經濟學을 招來하는 動機를 提供해 준 것은 틀림없이 이 時代의 덕분이다』(44)고 덧붙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長期間에 걸친 商業學의 沈滯에 견디다 못한 人士들이 各處에 모여 商業學의 再建을 위한 能動的이며 超黨派의 活動을 展開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工業技術一邊倒의 이거나, 官房學 내지 國民經濟學一邊倒의 學問的 雰圍氣에서 忽然히 일어나서, 그 脫出口을 商業專門教育機關의 設置에서 찾아 보려는 움직임이 獨逸을 中心으로 해서 특히 오저리, 스위스等地에서도 旺盛해진 것이다. 그리하여 1898년에 Leipzig와 Wien을 起點으로 해서 1901년에 Köln과 Frankfurt에, 1903년에는 Aachen, 1906年 Berlin, 1908年 St. Gallen, 1910年 München 등 수많은 商科大學들이 續續 設置, 名實共히 商業教育이 大學의 레벨에서 活潑히 研究·教育되어 오늘의 經營經濟學의 體系化를 이룩하는 母體가 되자, 「자이펠트」는 서슴치 않고 이 時期를 그의 經營學史上 第4期라 보고, 商科大學이 最初로 設置된 1898年을 그 時期의 始作이라 보는 것이다. 오늘날 美國에서 盛行하는 事例研究(Fall-Method)도 실은 이 때에 이미 獨逸人에 依해서 創案되었다고 主張(45)할 만치 各商科大學에서의 商業學에 관한 講義나 그 內容은 애초부터 상당히 充實했던 모양이다.

3) 經營經濟學으로의 形成

「자이펠트」(R. Seyffert)가 하필 1898年을 超點으로 해서 그의 文獻史的 經營學史上 第4期(敘述的 商業技術의 再建時代; 1898~1910)로 時代區分하는 것은 그 해에 世界最初의 商科大學이 「라이프지히」(Leipzig)와 「비엔」(Wien)에 設置된 때여서 그러하지만, 文獻史的으로는 보다 더 重要한 年代는 오히려 1903年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前年(1902年)에 商業教育의 再建과 그 擴大를 위해 設置(1895年)된 「獨逸商業教育協會」(Deutsche Verband für das kaufmännische Unterrichtswesen)가 獨立된 科學으로서의 商業經營學의 體系化에 관한 懸賞論文을 公募했을 때 그 當選論文인 「곰벨히」(L. Gomberg)의 「商業經營學과 個別經濟學」(46)이 出版된 해가 바로 1903年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 「곰벨히」는 처음으로 國民經濟學(Vol-

(43) R. Seyffert, a.a.O., S. 42

(44) R. Seyffert, a.a.O., S. 44

(45) R. Seyffert, a.a.O., S. 45

(46) Leon Gomberg, Handelsbetriebslehre und Einzelwirtschaftslehre, Leipzig, 1903 (「곰벨히」는 러시아系 스위스人 學者로써 같은 스위스人 學者인 「세어」(J.F. Schär)와 더불어 今日的 獨逸經營經濟學의 成立·發展을 위한 「重要한 先驅者로써」 看做되고 있다. 따라서 스위스人 學者들의 獨逸經營經濟學에의 貢獻度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kswirtschaftslehre)에 對應하는 個別經濟學(Einzelwirtschaftslehre)을 앞서워 商業經營學을 個別經濟學의 部分原理로 看做한 것이다. 따라서 19世紀의 技術의 進步의 渦中에서 商業經營活動과 함께 工業經營活動도 增大함에 따라 이른바 手工業商業(Handwerkshandel)이나 工場商業(Fabrikhandel) 등으로 別稱된 工業經營分野의 學問(오늘의 工業經營學)도 個別經濟學의 部分原理도 包含시켜 『個別經濟學은 바로 이러한 商業經營이나 工業經營이라는 個別經濟(Einzelwirtschaft)를 研究하며, 또 그러한 個別經濟의 活動過程을 考察하는 學問』⁽⁴⁷⁾이라고 喝破한 것이다.

결국 「곰벨히」는 商業經營이나 工業經營과 같은 個別經濟의 發生(狀態)을 考察해서, 個別經濟의 合理的 組織과 管理를 導出하는 것을 個別經濟學의 課題로 삼았으며, 단순한 商業經營學(Handelsbetriebslehre)을 超越한 個別經濟學의 研究를 主張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個別經濟學의 中心은 計算制度(특히 會計學)에 있다고 보고, 다만 計算制度는 결코 單純한 計算技術的 補助手段이 아니라 近代經營의 決定的組織手段이며, 個別經濟의 因果研究의 가장 重要한 手段이라는 見解도 表明한 것이다. 그 以後의 獨逸學者의 大部分이 計算制度, 즉 會計學에 그들의 興味를 集中시키기 시작했었다는 事實은 바로 「곰벨히」의 貢獻때문이다. 어찌되던 「곰벨히」의 文獻以後로 個別經濟學(Einzelwirtschaftslehre)이라는 斯學의 前身의 名稱以外에도 私經濟學(Privatwirtschaftslehre), 經濟的 經營學(wirtschaftliche Betriebslehre), 經營科學(Betriebswissenschaft) 등 許多한 名稱이 登場하였으며 『마침내 1918年以後 經營經濟學(Betriebswirtschaftslehre)이라는 學名으로 統一化되기에 이르렀다』⁽⁴⁸⁾고 하더라도 엄밀한 意味에서는 「곰벨히」의 「商業經營學과 個別經濟學」을 始發點으로 해서 商業學 내지 商業經營學을 超越한 오늘의 經營經濟學이 비로소 形成되기에 이른 契機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오늘날의 斯學의 統一의인 名稱인 經營經濟學이라는 觀點에 立脚할 때 文獻史的으로는 「자이헬트」(R. Seyffert)가 時代區分하는 第4期까지, 다시 말해서 「곰벨히」(L. Gombert)의 懸賞論文이 出版되기 까지의 時期(1910年以前)는 오직 商業學 내지 商業經營學의 集大成의 時期로서 소위 「經營經濟學前史」時代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現代的인 意味에서의 經營經濟學의 歷史는 「자이헬트」의 時代區分마따나 第5期인 「經營經濟學의 體系化와 擴大時代」(1910/12년부터)라고 看做할 수도 있게 된다. 그도 그럴것이 「곰벨히」의 研究業績을 契機로해서 商科大學이 創立되어진 후 거의 10年後에 새로운 角度에

(47) L. Gombert, a.a.O., S. 11

(48) R. Seyffert, a.a.O., S. 46

立脚한 經營經濟學에 관한 體系的인 著述들이 19世紀의 沈滯期를 벗어나 잇달아 出版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1910년부터 1912년의 不過 2年사이에 出版된 大作이나 主要論文만도 다음과 같다.

「헤라우워」(J. Hellauer), 「世界商業의 體系」(System der Welthandelslehre), Berlin, 1910

「쉐어」(J.F. Schär), 「一般商業經營學」(allgemeine Handelsbetriebslehre), Leipzig, 1911

「바이어만·쉐니쯔」(M. Weyermann & H. Schönitz), 「科學的 私經濟學的 基礎와 體系」

(Grundlegung und Systematik einer wissenschaftlichen Privatwirtschaftslehre), Karlsruhe, 1912

「닛크리쉬」(H. Nicklisch), 「商業과 工業의 私經濟學으로서의 一般商人經營學」(allgemeine kaufmännische Betriebslehre als Privatwirtschaftslehre des Handels und Industrie, Leipzig, 1912

「슈마렌바하」(E. Schmalenbach), Die Privatwirtschaftslehre als Kunstlehre, ZfHF, 1912.

1910/12年代야 말로 『統一的인 觀點에서 全體의 經營的(個別經濟的)인 問題意識을 提高시킨 經營經濟學的 勞作』⁽⁴⁹⁾으로 가득찼던 時代여서 이 무렵이 마치 「現代經營經濟學的 開花期」라 呼稱될만한도 하다.

이렇게 볼 때 1980年度를 바라보는 오늘의 經營經濟學을 가령 「近代經營經濟學的 深化期」라고 呼稱한다면 現代經營經濟學이 開花되어 近代經營經濟學으로 深化되기 까지의 期間이 거의 70年의 年輪을 헤아리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색다른 文獻史的 經營學史의 觀點에서는 이 半世紀남짓한 期間을 다시 兩分, 第2次世界大戰을 그 分界線으로써 소위 「經營經濟學的 發展時代」와 「經營經濟學的 理論化時代」로 나누어서 經營經濟學形成以後의 學史를 說明하고자 試圖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러한 試圖에 따를 때 「經營經濟學的 發展時代」는 今世紀初로부터 第2次世界大戰까지의 時期로서 1912年頃의 第1次方法論爭과 1930年頃의 第2次方法論爭을 거치 經營經濟學的 體系化와 內實的 充實化가 進展되었던 時點이라 할 수 있다. (이 時代의 本質的인 特徵으로써는 規範的 傾向과 經驗·實證的 傾向의 對立이 顯著했었다는 事實을 特記할 수가 있다.) 한편 「經營經濟學的 理論化時代」란 第2次大戰後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의 이른바 「理論局面」(Theorie-phase)의 時期로써,⁽⁵⁰⁾

(49) R. Seyffert, a.a.O., S. 46

(50) 「쉐어」(E. Schäfer)는 第2次世界大戰後의 狀態를 「理論局面」(Theorie-Phase)이라고 부르고, 原價論, 販賣論, 人事管理 등에 관한 이제까지의 研究는 部分領域의 研究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孤立的인 研究를 하나의 一般的인 經營經濟理論 가운데서 體系化해야 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E. Schäfer, Grundlagen der BWL, In; Handbuch der Wirtschaftswissenschaft, 1958)

1950年頃の第3次方法論爭을契機로 한 實證的經營經濟學의 대두와 그 理論的 把握, 그리고 實質的 內容의 充實과 함께 經營經濟學自體의 方法論的 發展이 行해지는 時點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現代의 獨逸經營經濟學의 理論化는 方法論·科學論의 變貌와 關聯해서 그 考察이 行해지고 있다는 事實을 看過해서는 아니된다.)

「라이프치히」(Leipzig)와 「비엔」(Wien)에 世界最初의 商科大學이 設置되는 1898年을 起點으로해서 「곰벨히」(L. Gombert)에 依해 從來의 商業經營學에서 國民經濟學(Volkswirtschaftslehre)에 對應하는, 「商工經營」을 包括한 이른바 個別經濟學(Einzelwirtschaftslehre)이 發展的으로 提唱되기에 이른데에는 商業資本主義만의 時代는 이미 가고 야야호로 產業資本主義 時代가 到來하고 있다는 問題史의 事實이 그 背景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原因이 있게 된다. 즉 獨逸經營學은 오랜 前史를 繼承해서 19世紀 全般에 걸친 「經營學의 退步時期」後에 商業經營學의 再建으로서 出發하기에 이르렀지만, 진작 이러한 產業資本主義의 渦中에서 商業經營學을 再建하다 보면 商業經營만을 제아무리 擴張·解釋해도 工業經營이나 其他部門까지도 包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個別經濟學, 다시 말해서 1918年 以後에 經營經濟學(Betriebswirtschaftslehre)으로 統一的으로 呼稱되기에 이른 斯學은 이로부터 商工經營을 中心으로 하는 事業經營一般을 그 對象으로 삼았으며, 商業經營學은 다만 經營經濟學의 部分原理로 看做될 따름이었다.

이렇듯 個別經濟學, 따라서 오늘의 經營經濟學이 國民經濟學과 對應되는 獨立概念으로 크게 浮刻되기 시작하자, 이때부터 斯學의 學問의 性格을 둘러싼 甲論乙駁이 잇달게 되는, 1910/12年부서의 소위 「經營經濟學의 體系化와 擴大時代」(Die Zeit der Systematisierung und Ausweitung zur BWL; ab 1910/12)⁽⁵¹⁾가 到來되기에 이른다. 바로 앞에서 列擧한 「와이어만·셰니츠」(Weyermann·Schönita)와 「넉크리쉬」(Nicklisch)의 劬作이나 「슈말렌바하」(Schmalenbach)의 論文이 그러한 甲論乙駁의 典型的인 對象으로 손꼽을 수 있다.

그런데 文獻史의 經營學史의 觀點에서 볼 때 經營學이 果然 純粹한 理論科學인가, 또는 단순한 技術論인가에 관한 最初의 論爭이 발발한 것은 1912年頃이며, 이를 世稱 第1次方法論爭(Methodenstreit)이라 일컬지만, 그 當時의 個別經濟學(Einzelwirtschaftslehre), 더 나아가서는 私經濟學(Privatwirtschaftslehre), 즉 오늘날의 經營經濟學(Betriebswirtschaftslehre)의 變型的 前身인 斯學의 學問的 性格에 관한 論議의 中心이 方法論上 『私經濟學은 하나의 學問(eine Lehre)이되 科學(Wissenschaft)인가, 또는 技術論(Kunstlehre)인가』하는 問題였었다. 이 첫 私經濟學方法論爭은 그 當時의 國民經濟學者側에서 먼저 提起되어졌으

(51) R. Seyffert, a.a.O., S. 34

며, 그 代辯者의 役割을 담당하던 「바이어만」(W. Weyermann)과 「쉐니쯔」(N. Schönitz)의 「科學的 私經濟學」⁽⁵²⁾의 提唱이 바로 그 直接的인 導火線이다.

그렇지 않아도 19世紀末에 商科大學이 續續 設立된 以後의 독일에서는 國民經濟學으로부터의 自律化를 강하게 意識한 實踐的인 商業經營學이 태두하고 있었으며, 工業經營도 包括한 個別經濟學의 테두리 속에서 經營上의 制度和 處理가 주로 歸納的으로 研究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러한 個別經濟學(私經濟學)이 결국 오늘 의 經營經濟學으로 發展되기에 이른 것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國民經濟學은 그 部分領域으로서의 經營을 演繹的方法으로 把握하기가 一般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으로는 그 研究가 不充分하다하여 國民經濟學者側에서도 商業經營學의 경우처럼 歸納的으로 把握할 特殊한 私經濟學이 要請되어지기 시작하여 그 代辯者로서의 「바이어만」과 「쉐니쯔」의 提唱이 곧 第1次 私經濟學方法論爭의 불씨가 된 것이다. 그들은 한마디로 表現해서 이른바 科學的 私經濟學(wissenschaftliche privatwirtschaft)은 國民經濟學(Volkswirtschaftslehre)의 一部며, 經營을 研究의 對象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은 社會經濟的 認識에 有用할 뿐 어디까지나 理論科學的으로 研究되어야 하며, 전혀 實踐과는 無關係한 科學이라고 主張한다. 때문에 直接 實踐을 志向하는 技術論은 非科學的이며, 소위 利潤學(profitlehre)에 지나지 않는다고 強調하기도 한다.⁽⁵³⁾

물론 「바이어만」과 「쉐니쯔」의 私經濟學論은 엄밀한 意味에서는 다만 概念的 「프레임워크」의 集大成일뿐 그 內容에 있어서도 그다지 신통한 알맹이 없는, 一種의 問題提起格의 著作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觀點에서 이들의 問題提起를 支持的으로 擴大시켜 內容的으로도 補完하고자 試圖한 論者가 바로 前揭한 「닛크리쉬」의 「商業과 工業의 私經濟學으로서의 一般商人經營學」⁽⁵⁴⁾이다. 하긴 「닛크리쉬」自身이 後日에 私經濟學을 科學(Wissenschaft)과 技術(Kunst)의 兩生的 學問일수 있다고 訂正的으로 追記하는 일도 있다고 하더라도 젊은날의 「닛크리쉬」는 分明히 「바이어만」과 「쉐니쯔」의 所論을 大幅的으로 支持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國民經濟學派의인 主張이나 強調에 대해 正面으로 挑戰한 經營經濟學者가 바로 쾰른學派(Kölner Schule)의 元祖인 「슈말렌바하」(E. Schumalenbach)이다. 그는 그의 「技術論으로써의 私經濟學」⁽⁵⁵⁾에서 「바이어만」과 「쉐니쯔」에 依해 獨立的으로는 그 科學性이 否定된 技術論으로서의 性格을 오히려 私經濟學의 特質로서 規定했을 뿐만 아니라,

(52) W. Weyermann & H. Schönitz, Grundlegung und Systematik einer wissenschaftlichen privatwirtschaftslehre und ihre Pflege an Universitäten und Fach-Hochschule, Karlsruhe, 1912

(53) W. Weyermann & H. Schönitz, a.a.O., SS. 67~140

(54) H. Nicklisch, Allgemeine kaufmännische Betriebslehre als Privatwirtschaftslehre des Handels und Industrie, Leipzig, 1912

(55) E. Schmalenbach, Die Privatwirtschaftslehre als Kunstlehre, a.a.O., 1912

技術論으로서의 私經濟學이 理論科學으로써의 그것과 比較해서 보다 優越性을 지닌다는 獨自의 主張을 開陳한 것이다. 즉 그는 技術論에 對立하는 概念으로써의 科學은 「哲學的으로 方向지워진 科學」인데 반해 技術論은 「技術學的(technologisch)으로 方向지워진 科學」으로써 後者(技術論)가 「處理의 諸規則」(Verfahrensregeln)을 提示하여 주는 데에도 前者는 전혀 提示하여 주지 않는다고 喝破하고, 現象으로서가 아닌 處理, 다시 말해서 商業的 處理를 研究의 對象으로하는 科學이 바로 技術論이며, 그 決定的 利點으로써 實驗을 통한 命題의 正確性이 確認될 수 있다는 可能性을 들어 그 自身이 主張하는 技術論的 私經濟學을 도리어 經營經濟學의 王座로 君臨시키고자 한 것이다.

「바이어만」과 「쉐니쯔」가 提唱한 科學的 私經濟學에 正面으로 挑戰한 「슈마렌바하」의 技術論的 私經濟學사이에서 빚어진 第1次 私經濟學方法論爭에는 「쉐어」(J. F. Schär), 「루·크틀」(le Coutre), 「헬라우어」(J. Hellauer), 「니크리쉬」(N. Nickliser), 「슈미트」(F. Schmidt), 「브렌타노」(L. Brentano), 「옵스트」(G. Obst), 등의 許多한 碩學들이 參加하였지만, 결국 그 以後의 事實上의 發展段階에서는 어쨌든 「슈마렌바하」의 全盛時代가 오게 된다. 그 후 約 15年間의 斯學의 發達は 科學的私經濟學이 後退하면서 마치 「슈마렌바하」의 技術論的 經濟學에 관한 主張이 眞實인양 實證되는 것과 같은 時代가 계속하게 된다. 그러나 그 후 1928年에 出版된 「리이거」(W. Rieger)의 「私經濟學入門」⁽⁵⁶⁾에 依해 이러한 當時의 樂觀論(科學的 私經濟學論이 後退하였거나 技術論的 私經濟學論이 固定化되기 시작하였다는 思潮)은 霧散되기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私經濟學의 學問的 性格과 課題를 둘러싸고 「리이거」에 依해 또 다시 惹起되어진 第2次方法論爭의 시작이다.

「私經濟學入門」에 依해 披歷된 專門科學의 方法論的 基準에 대한 「리이거」의 見解는 비록 그러한 基準가운데서 完成되어진 企業의 理論에 관한 限에 있어서는 색다른 것이었으나, 本質的으로는 「바이어만」과 「쉐니쯔」에 依한 科學的 私經濟學의 復活이라 할 수 있다. 「리이거」는 그의 著書에서 「處理의 諸規則」을 提示한다는 實踐的인 經營學, 즉 應用을 志向하는 經營經濟學(技術論)에 激한 反論을 提起하였으며, 科學은 다만 우리들이 經濟라고 부르는 事項에 대한 認識을 仲介할 따름이지 實踐的인 行爲에 대한 向方이나 處方을 提示해서는 안된다고 主張한다. 그리고 企業家·利潤등을 關聯시키면서 어디까지나 資本主義的 企業을 客觀的으로 把握하는 바탕위에서 斯學을 理論(純粹)科學으로 體系化시키려는데에 「리이거」私經濟學의 特色이 있게 된다.

(56) W. Rieger, Einführung in die Privatwirtschaftslehre, Nürnberg, 1928 (2. Aufl., Erlangen, 1959)

이러한 「리이저」의 方法論上的 見解는 특히 「지이버」(E.H. Sieber), 「셴프루구」(F. Schönpflug), 「프레이저」(E. Preiser), 「텐드리」(H. Töndury), 「울리히」(H. Ulrich) 등의 參加에 依해 第2次 方法論爭의 焦點이 되었다. 이 2次論爭도 결국 1次論爭의 경우처럼 窮極의 으로는 實質上 解決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初創期에 있던 斯學의 一般의인 發展과 比較해서 그러한 論爭이 너무 이른 感도 없지 않는 것과는 같은 方法論爭의 早產格이었다. 왜냐하면 1次와 2次的 方法論爭들이 주로 經營의 計算制度나 資本調達 등 技術의 側面에서 斯學의 學問의 性格을 究明하는 일에 集中되어 많은 論爭史的 發展을 거듭하였다고는 하더라도, 其他 經營의 販賣理論이나 原價理論, 또는 人事管理과 같은 側面에는 전혀 言及이 미친 바도 없었으며, 더구나 技術論自體가 아직도 理論의 基盤이 缺乏되고 있는 狀態였기 때문이다. 다만 實踐의인 經營經濟學이 그 때만 하더라도 事實上的 主流를 形成하고 있었을 뿐 斯學의 學問으로서의 存在역시 그 初創期에 놓여 있었을 따름이다.

이러한 初創期的 經營學의 學問의 性格으로써 오늘날처럼 科學과 技術의 兩生의 性格이 明百해진 것은 바로 1950年代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구텐벨히」(E. Gutenberg)의 「經營經濟學原理, 第1卷, 生産論」⁽⁵⁷⁾이 出版된 해인 1952년이 곧 第3次 方法論爭의 始發點이자 斯學의 學問의 性格의 確立期라 볼 수 있다. 그 까닭은 「구텐벨히」의 著述에 依해 비로소 贊否兩論의 大規模의인 今次 方法論爭이 惹起되어짐으로써 「生産論」 出版以後의 6年間に 無慮 95개의 見解가 쏟아지기까지에 이르도록 斯學의 學問의 性格에 관한 論議가 그렇게도 尖銳化되었기 때문이다. 「구텐벨히」는 한마디로 表現해서 其間 經營經濟學이라는 名稱으로 統一된 斯學을 純粹理論科學으로 보고, 國民經濟의 領域의 一部로서 看做함으로써 經營問題의 解明에 있어 애써 國民經濟學上的 經濟理論을 그 分析用具로써 利用하고자 試圖한 것이다. 따라서 「구텐벨히」의 이와 같은 方法論의 意圖가 이른바 技術論派에 依해 猛烈的 攻擊의 對象이 된 것은 물론이며, 특히 「슈마렌바하」의 技術論으로서의 實踐的 經營經濟學을 承繼하는 「멜로로비치」(K. Mellerowicz)에 依해 심한 反박이 提起되어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어찌 되던 1950年 以來 「구텐벨히」의 出現에 依해 비로소 經營經濟學의 理論化, 즉 經營經濟學의 完結된 理論體系가 明示되어지면서 經驗・實證의 傾向이 暫次로 定着되어 나가는 渦中에서 理論的 經營經濟學(純粹科學)과 實踐的 經營經濟學(技術論)이 並存하게 되며, 이 兩者가 오늘의 독일經營經濟學의 主流를 形成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물론 독일經營經濟學

(57) E. Gutenberg, Grundlagen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Bd. I., Die Produktion, Köln und Opladen, 1952

에 있어서는 「슈마렌바하」의 實踐的 經營經濟學이 歷史的으로도 가장 오랜 傳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지만, 技術論으로써는 아직도 理論的인 基盤이 缺乏된 狀態였기 때문에 經營經濟學의 統一的 理論의 體系化가 처음으로 試圖되었었다는 점은 斯學의 發展을 위해 特記할 만한 事實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은 當然하다. 따라서 1950年代의 「구텐벨히」의 出現以後의 독일 經營經濟學은 實踐的 經營學으로써 보다는도 理論的 經營學으로써의 色彩가 濃厚해지면서도 經驗·實證的 傾向을 底流로 해서 生産要素의 結合過程을 重視하는 「구텐벨히」의 理論科學(純粹科學)과, 「슈마렌바하」의 學風을 繼承하는 「멜로로비치」를 비롯하여 「학크스」(K. Hax), 「목스터」(A. Moxter) 등의 計算制度(會計學)를 核心으로 하는 應用科學(技術論)이 제각기의 部分領域의 研究成果를 攝取, 그 實質的 內容을 充實시키면서 서로가 經營經濟學의 理論化時代를 發展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독일 經營經濟學이라 할 수 있다.